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1. 30.(금) 14:00
(지 면) 2026. 1. 31.(토) 조간

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현장점검
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서울 남대문시장 내 상가 화재 안전관리 상황 점검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30일(금)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.
 -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,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,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.
- 김광용 본부장은 상가 내 전기·가스 시설 관리 현황과 함께, 화재 초기 대응 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, 화재감지기, 옥외소화장치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.
 - 특히, 김 본부장은 좁은 통행로와 적치된 상품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, 상인과 이용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.
 - 아울러, 소화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며,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경청했다.
-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,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사회재난실	책임자	과 장	조정원 (044-205-6330)
	국토산업재난대응과	담당자	사무관	김종훈 (044-205-6340)